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4년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 1.2% 감소

○ 2014년 2월 생산은 공공행정, 도소매업 등에서는 감소,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7.7%), 석유정제(-6.7%), 의료정밀과학(-5.4%)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1.3%), 1차 금속(12.5%), 기계장비(10.4%)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4.5%(전월대비 1.9% 감소)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1%), 예술·스포츠·여가(-0.7%)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2%), 금융보험업(1.1%), 음식숙박업(1.9%), 사업시설관리(2.5%), 운수업(1.8%)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1.3%(전월대비 0.4% 감소) 증가하였음.

○ 2014년 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2.3%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10.2%)는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5.3%), 의복 등 준내구재(-2.6%)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0.7%(전월대비 3.2% 감소)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일반기계류, 자동차 등에서는 늘어 전년동월대비 12.3%(전월대비 0.3% 감소) 증가하였음.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항만, 철도, 주

택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도로, 교량 등에서는 수주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7.6% 증가하였음.

- 2014년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4개월 연속 상승 추세였으나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등이 부진함에 따라 전월대비 0.1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 소비자기대지수 등은 상승하였으나 국제원자재가격지수(원계열),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하여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201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3% 상승(생활물가지수 0.8% 상승)

- 201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9(2010년=100)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하여 지난달(1.0%)에 비해 0.3%p 하락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1%), 주류 및 담배(-0.1%), 교통(-1.6%), 통신(-0.2%) 부문은 하락하였고, 의류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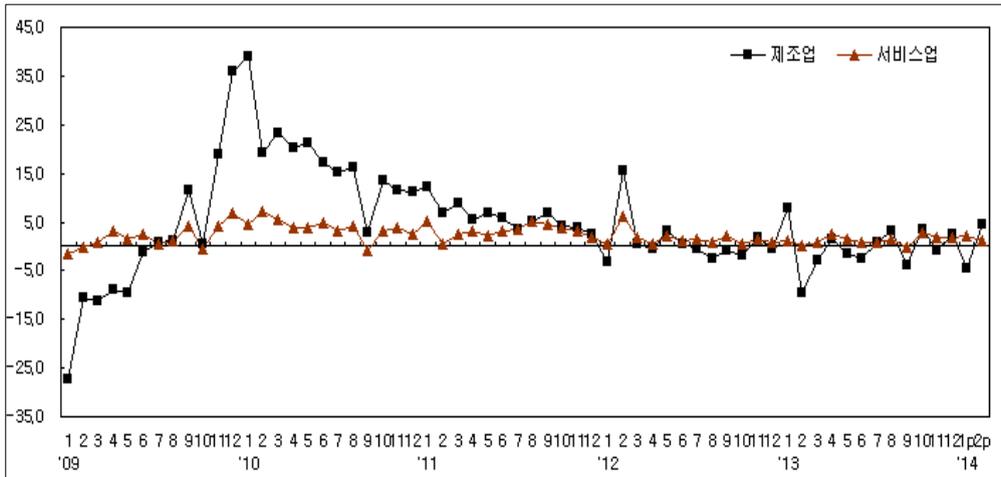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2월	2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9	0.3	-8.7	4.3(-1.8)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2.0	0.3	-9.1	4.5(-1.9)
	출하	10.0	5.4	4.7	2.8	5.6	3.1	1.7	0.6	0.5	1.5	-0.8	0.5	0.2	1.8	0.4	-8.3	3.4(-0.8)
	내수	7.3	4.0	3.8	1.5	4.1	0.8	-0.5	-0.9	-1.2	-0.5	-3.2	-1.9	-1.0	1.6	-1.4	-10.4	5.0(-0.5)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5.5	1.6(-1.2)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8	2.1	1.4	0.3	1.3(-0.4)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0	0.7	1.2	0.8	1.7	-0.7(-3.2)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1.4	-1.3	-23.5	12.3(-0.3)
물가		4.8	4.2	4.8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5	1.3(0.2)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3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및 신발(4.1%),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0%), 교육(1.9%), 음식 및 숙박(1.4%), 오락 및 문화(0.2%)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음.
- 2014년 3월 생활물가지수는 108.11를 기록하여 각각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하였음.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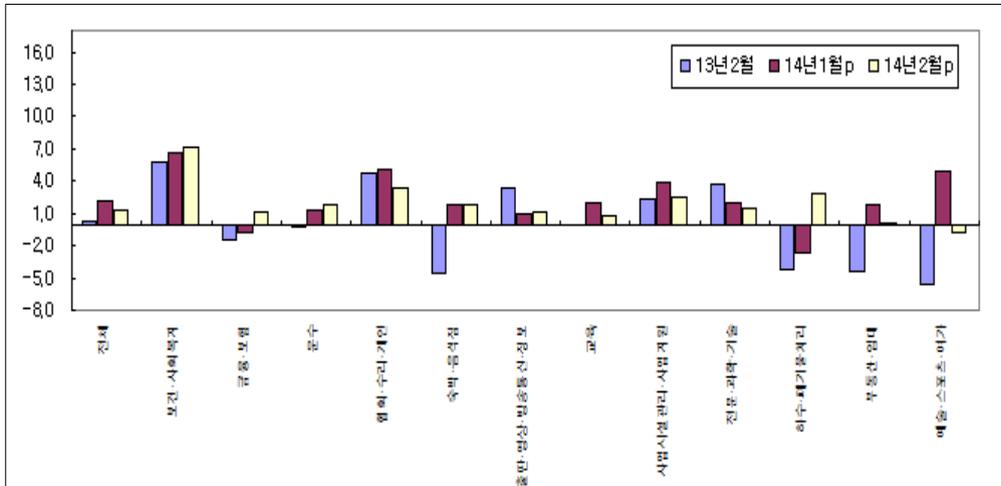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3), 『2014년 2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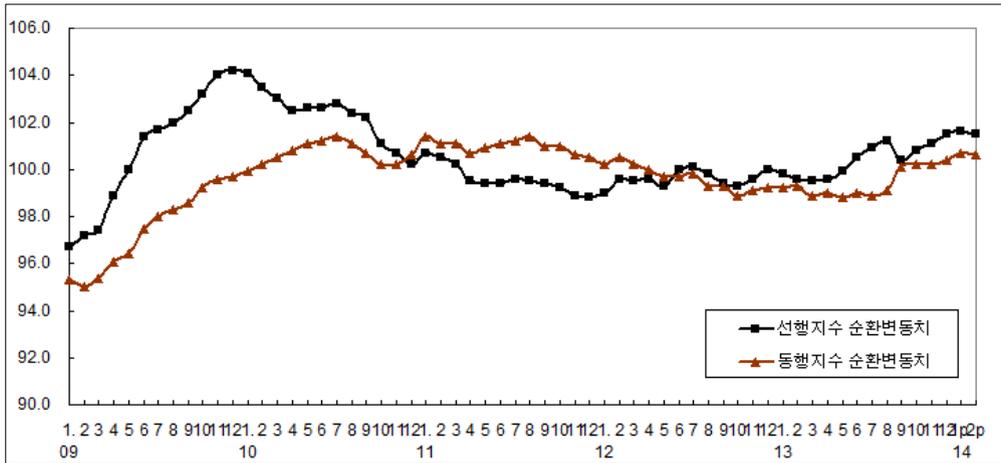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 상승, 취업자 증가**

- 2014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5,945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54천 명(3.4%)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151천 명으로 413천 명(2.8%)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94천 명으로 441천 명(4.3%) 증가하였음.
- 2014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동분기대비 1.4%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2%)은 전년동분기대비 1.3%p 상승하였고, 여성(49.9%)은 전년동분기대비 1.2%p 상승하였음(그림 4 윗그림 참조).
- 2014년 1/4분기 중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분기대비 1.1%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3%로 전년동분기대비 1.1%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7.9%로 전년동분기대비 1.2%p 상승하였음(그림 4 아랫그림 참조).
- 2014년 1/4분기 중 취업자는 24,91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29천 명(3.0%)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55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3천 명(2.6%)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36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7천 명(3.6%)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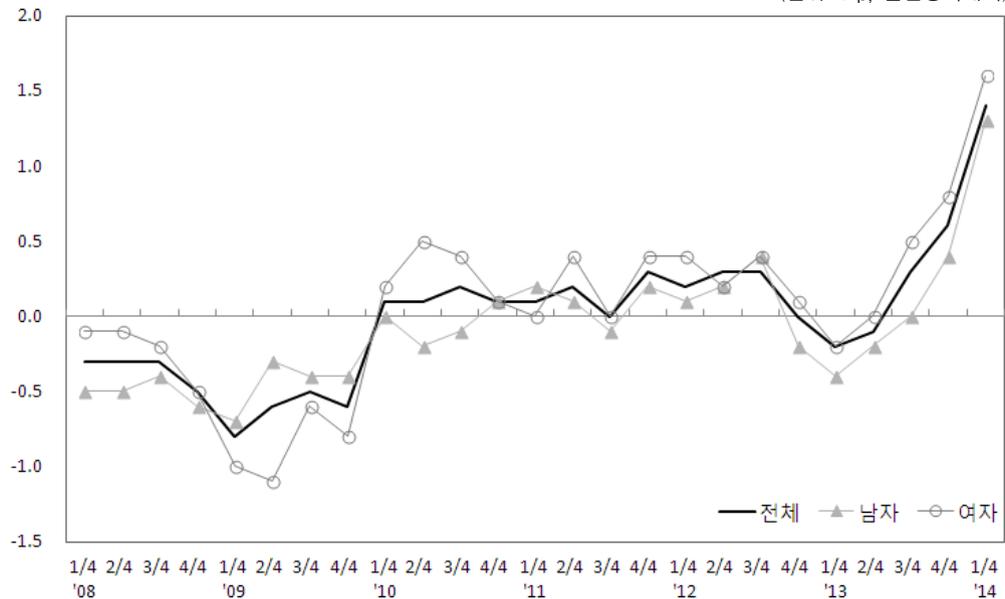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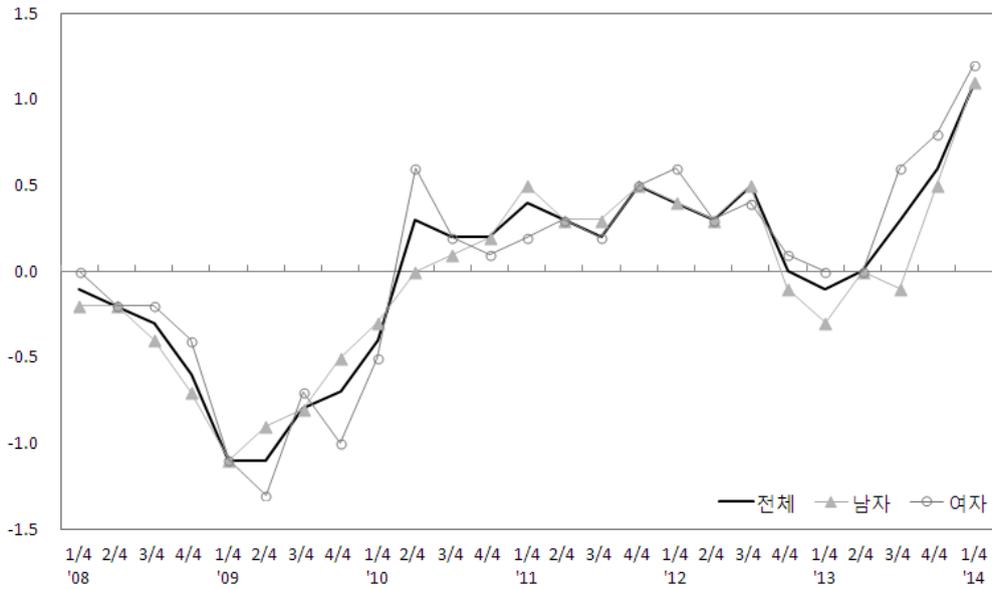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5,526 ( 1.3)	25,091 ( 0.9)	25,397 ( 0.7)	26,138 ( 1.1)	26,187 ( 1.7)	26,078 ( 2.2)	25,945 ( 3.4)	25,997 ( 4.1)	26,187 ( 3.1)
참가율	61.1	59.9	60.5	62.2	62.1	61.7	61.3	61.4	61.8
취업자	24,804 ( 1.4)	24,184 ( 1.1)	24,514 ( 1.0)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4,913 ( 3.0)	24,819 ( 3.5)	25,163 ( 2.6)
고용률	59.4	57.7	58.4	60.2	60.3	60.0	58.8	58.6	59.4
실업자	722	907	883	812	777	733	1,031	1,178	1,024
실업률	2.8	3.6	3.5	3.1	3.0	2.8	4.0	4.5	3.9
비경제활동인구	16,258 ( 1.5)	16,831 ( 2.0)	16,564 ( 2.2)	15,911 ( 1.5)	15,982 ( 0.5)	16,167 (-0.6)	16,397 (-2.6)	16,346 (-3.6)	16,191 (-2.2)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4. 4), 『2014년 3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참가율(위)과 고용률(아래)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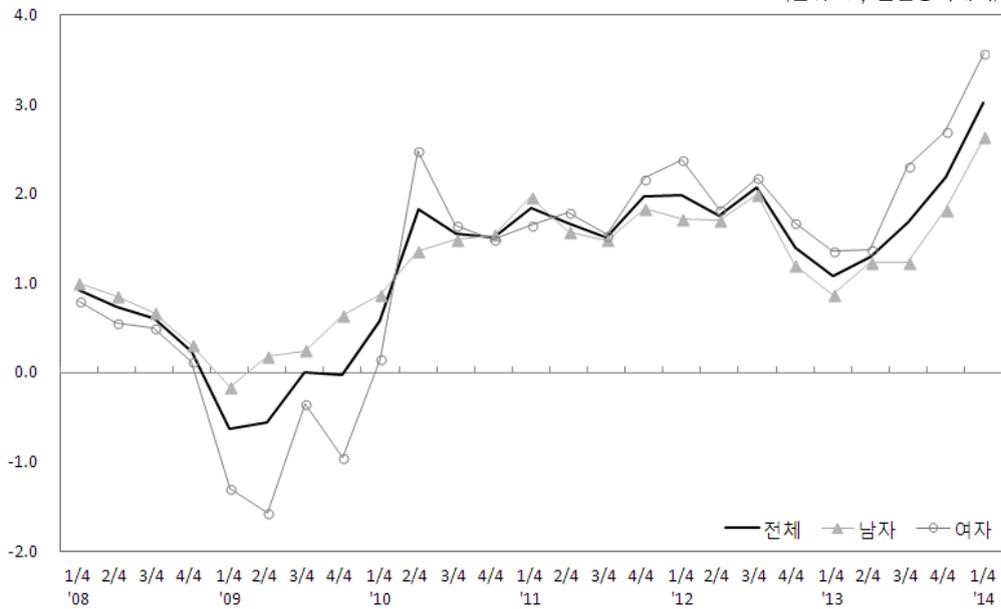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1/4분기 중 실업자는 1,031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5천 명(13.7%) 증가, 실업률은 4.0%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9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0천 명(7.2%)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34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4천 명(24.1%)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9%로 전년동분기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4.0%로 전년동분기대비 0.6%p 상승하였음.
  
- 2014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39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33천 명(-2.6%)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5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01천 명(-3.5%)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84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33천 명(-2.1%) 감소하였음.
  - 2014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80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86천 명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559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7천 명(-11.2%)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70천 명으로 76천 명(-1.8%) 감소하였음.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산업 전반에서 취업자 전년동분기대비 증가**

- 2014년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을 보면, 농림어업(12천 명, 1.0%), 제조업(123천 명, 3.0%), 건설업(27천 명, 1.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03천 명, 5.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9천 명, 2.4%), 그리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56천 명, 1.9%)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증가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산업	24,804 ( 1.4)	24,184 ( 1.1)	24,514 ( 1.0)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4,913 ( 3.0)	24,819 ( 3.5)	25,163 ( 2.6)
농림어업	1,518 (-0.2)	1,167 (-0.7)	1,368 ( 0.3)	1,686 (-1.6)	1,724 ( 1.1)	1,504 (-1.0)	1,179 ( 1.0)	1,123 ( 2.6)	1,327 (-3.0)
제조업	4,196 ( 3.5)	4,156 ( 3.0)	4,141 ( 3.1)	4,182 ( 3.0)	4,152 ( 0.6)	4,245 ( 1.2)	4,279 ( 3.0)	4,274 ( 3.3)	4,284 ( 3.5)
건설업	1,792 (-2.2)	1,656 (-3.7)	1,693 (-2.9)	1,801 (-0.4)	1,775 ( 0.2)	1,783 (-0.5)	1,683 ( 1.6)	1,663 ( 3.7)	1,699 (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03 ( 1.1)	5,534 (-0.7)	5,453 (-1.4)	5,585 (-0.2)	5,652 ( 0.7)	5,751 ( 2.6)	5,837 ( 5.5)	5,867 ( 5.9)	5,790 ( 6.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682 ( 2.3)	8,656 ( 3.1)	8,834 ( 3.0)	8,974 ( 1.7)	8,990 ( 2.5)	8,994 ( 3.6)	8,865 ( 2.4)	8,816 ( 2.5)	9,012 ( 2.0)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998 (-0.4)	2,999 (-0.4)	3,009 (-0.4)	3,082 ( 3.1)	3,102 ( 3.8)	3,054 ( 1.9)	3,055 ( 1.9)	3,061 ( 2.3)	3,038 ( 1.0)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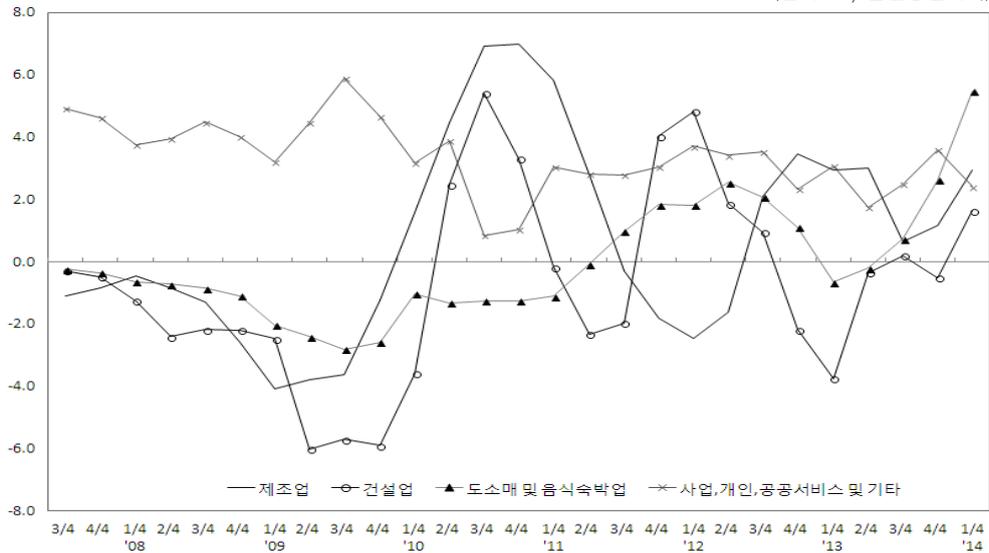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4. 4), 『2014년 3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자영업자 감소세 완화**

- 2014년 1/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는 6,597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천 명(0.3%) 증가, 임금근로자는 18,316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11천 명(4.0%)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1,985천 명으로 606천 명(5.3%)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835천 명으로 74천 명(1.5%) 증가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1,496천 명으로 31천 명(2.1%) 증가하였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짐(그림 7 참조).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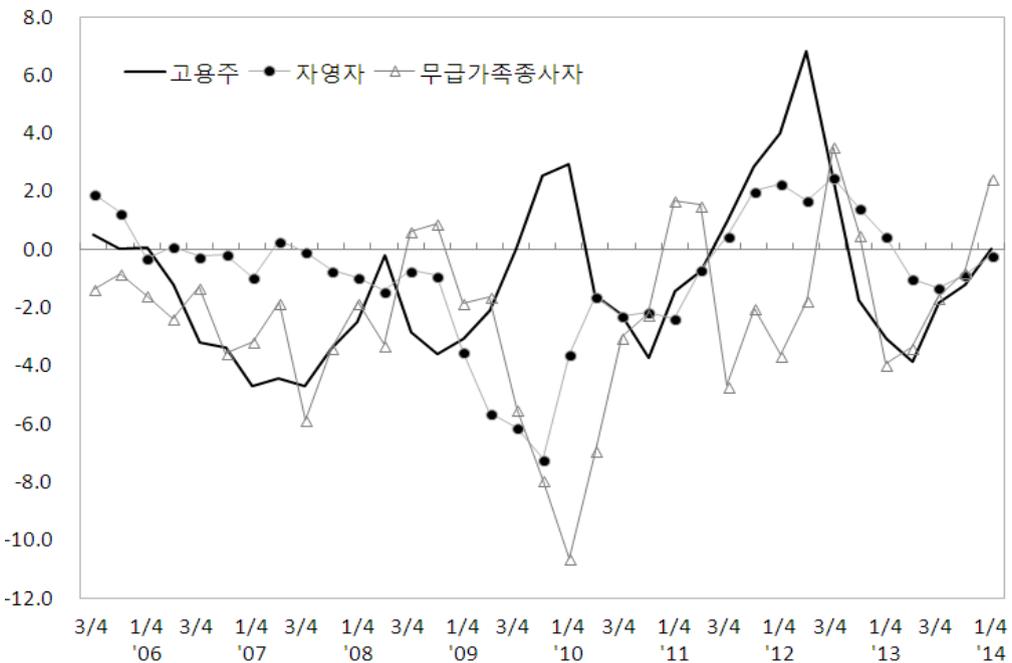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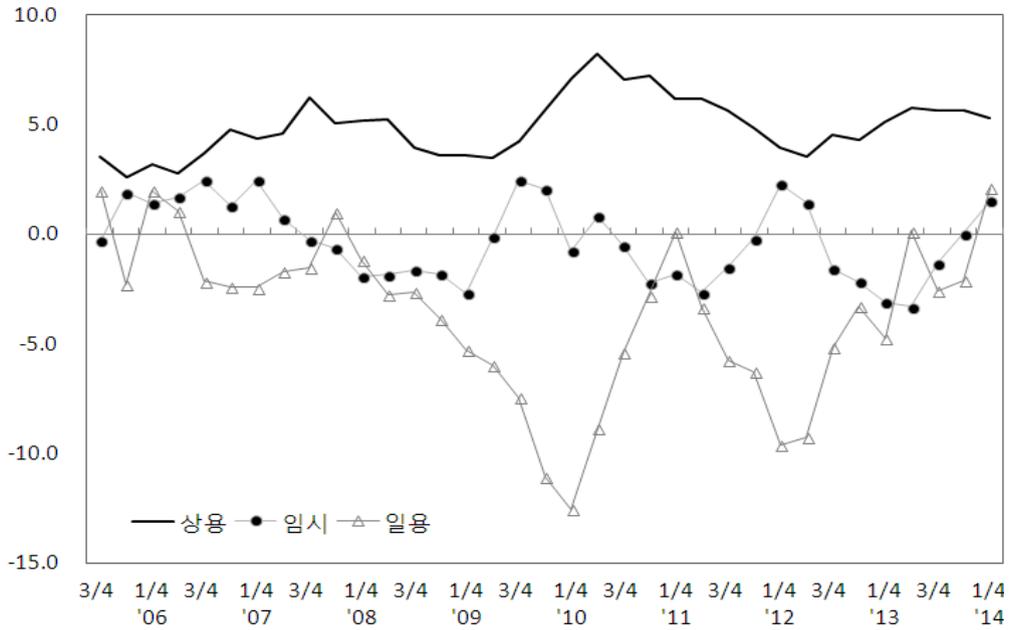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24,804 ( 1.4)	24,184 ( 1.1)	24,514 ( 1.0)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4,913 ( 3.0)	24,819 ( 3.5)	25,163 ( 2.6)
비임금근로자	6,917 ( 0.6)	6,578 (-1.1)	6,771 (-1.1)	7,006 (-2.1)	7,049 (-1.5)	6,854 (-0.9)	6,597 ( 0.3)	6,523 ( 0.5)	6,766 (-0.1)
자영업주	5,672 ( 0.6)	5,520 (-0.5)	5,631 (-0.8)	5,726 (-1.8)	5,740 (-1.4)	5,618 (-0.9)	5,512 (-0.1)	5,464 (-0.2)	5,613 (-0.3)
무급가족종사자	1,245 ( 0.5)	1,059 (-3.9)	1,140 (-2.2)	1,280 (-3.4)	1,309 (-1.6)	1,236 (-0.8)	1,085 ( 2.5)	1,493 (-0.9)	1,153 ( 1.1)
임금근로자	17,887 ( 1.7)	17,606 ( 1.9)	17,743 ( 1.8)	18,320 ( 2.6)	18,361 ( 2.9)	18,492 ( 3.4)	18,316 ( 4.0)	18,296 ( 4.6)	18,397 ( 3.7)
상용근로자	11,288 ( 4.3)	11,379 ( 5.1)	11,510 ( 5.6)	11,697 ( 5.8)	11,848 ( 5.6)	11,925 ( 5.6)	11,985 ( 5.3)	11,970 ( 5.6)	12,034 ( 4.5)
임시근로자	4,933 (-2.2)	4,762 (-3.1)	4,769 (-4.6)	4,945 (-3.3)	4,928 (-1.3)	4,935 ( 0.0)	4,835 ( 1.5)	4,824 ( 2.1)	4,926 ( 3.3)
일용근로자	1,666 (-3.3)	1,465 (-4.8)	1,465 (-4.0)	1,678 ( 0.2)	1,585 (-2.6)	1,631 (-2.1)	1,496 ( 2.1)	1,501 ( 4.9)	1,438 (-1.8)
36시간 미만	3,219 ( 0.0)	5,563 (67.9)	3,354 (0.7)	4,821 (46.8)	5,083 ( 7.6)	3,395 ( 5.5)	3,593 (-35.4)	3,667 (-63.2)	3,545 ( 5.7)
36시간 이상	21,271 ( 1.6)	18,099 (-9.9)	20,848 (1.2)	20,217 (-5.6)	19,810 ( 0.2)	21,636 ( 1.7)	20,829 (15.1)	20,699 (54.3)	21,270 ( 2.0)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4. 4), 『2014년 3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위) 및 비임금근로자(아래)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2014년 1/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9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970천 명(-35.4%) 감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829천 명으로 2,730천 명(15.1%) 증가함.

◆ 30대 및 50대 실업률 하락

- 2014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30대(3.2%, -0.1%p) 와 50대(2.2%, -0.1%p) 연령대에서는 하락, 15~29세(9.8%, 1.4%p) 및 40대(2.3%, 0.2%p), 60세 이상(4.4%, 1.0%p) 연령대에서는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경우 전년동분기대비 중졸 이하(3.8%, 0.6%p)와 고졸(4.3%, 0.6%p)에서는 상승하였고, 대졸 이상(3.7%)에서는 전년동분기와 동일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2		2013				2014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722 (2.8)	907 (3.6)	883 (3.5)	812 (3.1)	777 (3.0)	733 (2.8)	1,031 (4.0)	1,178 (4.5)	1,024 (3.9)
15~29세	284 (7.0)	343 (8.4)	346 (8.6)	325 (7.9)	328 (7.9)	328 (7.9)	419 (9.8)	473 (10.9)	412 (9.9)
30~39세	162 (2.7)	195 (3.3)	187 (3.2)	180 (3.0)	170 (2.9)	155 (2.6)	187 (3.2)	211 (3.6)	199 (3.4)
40~49세	122 (1.8)	143 (2.1)	157 (2.3)	146 (2.1)	131 (1.9)	114 (1.7)	155 (2.3)	164 (2.4)	167 (2.4)
50~59세	102 (1.8)	127 (2.3)	122 (2.2)	106 (1.8)	106 (1.8)	88 (1.5)	130 (2.2)	134 (2.3)	143 (2.4)
60세 이상	52 (1.6)	99 (3.4)	72 (2.3)	56 (1.6)	42 (1.2)	48 (1.4)	140 (4.4)	196 (6.2)	103 (3.0)
중졸 이하	98 (2.0)	148 (3.3)	113 (2.4)	101 (2.0)	86 (1.8)	84 (1.8)	173 (3.9)	217 (5.0)	139 (3.1)
고졸	321 (3.2)	367 (3.7)	349 (3.5)	341 (3.3)	345 (3.4)	335 (3.3)	443 (4.3)	475 (4.5)	423 (4.1)
대졸 이상	303 (2.9)	392 (3.7)	421 (3.9)	370 (3.4)	346 (3.1)	313 (2.8)	416 (3.7)	487 (4.3)	462 (4.1)
취업무경험 실업자	39	61	60	48	54	49	83	99	73
취업유경험 실업자	683	845	823	764	723	684	948	1,079	951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4. 4), 『2014년 3월 고용동향』.

- 2014년 1/4분기 중 전체 실업자 1,031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83천 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2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94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3천 명 증가함.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4년 1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15.9% 상승

- 2014년 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7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168천 원) 15.9% 상승함.
  - 2014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3.5%), 초과급여(5.0%), 특별급여(75.7%)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6.5% 상승한 3,895천 원을 기록함.
  - 특별급여(1,051천 원)의 급증은 설날 상여금 등 지급월이 전년동월과 달라 급격히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임.
  - 한편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한 1,464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함.
- 2014년 1월 실질임금은 14.7% 상승함.
  - 소비자물가(2010년 기준)가 반영되는 실질임금은 2014년 1월 기준 14.7% 상승함.
  - 2014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상승률(1.5%)이 둔화한 반면, 같은 기간 명목임금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15.9%)한 영향으로 2014년 1월 실질임금이 크게 증가함(그림 8 참조).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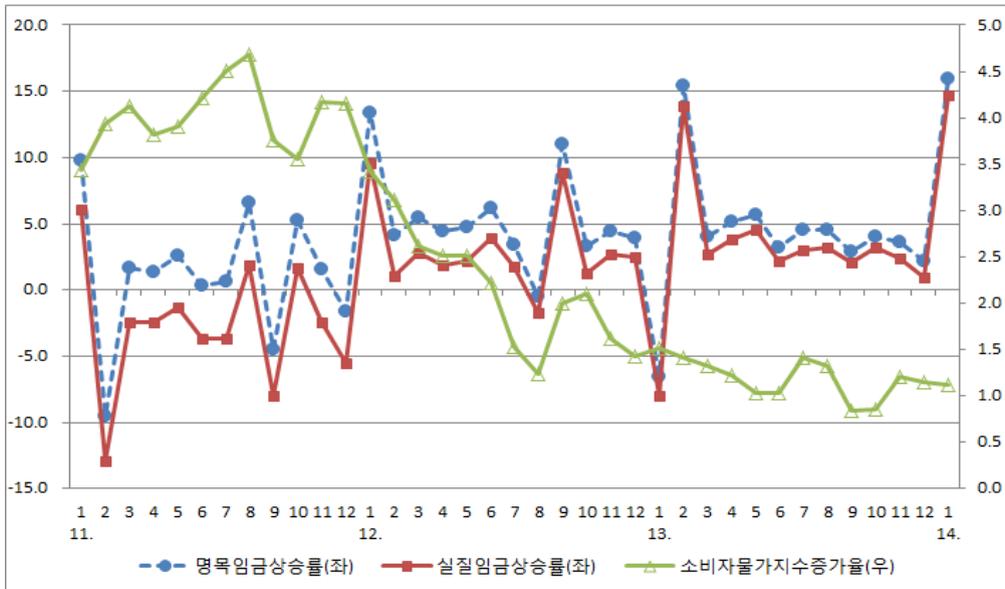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0	2011	2012	2013	2014
						1월
전체 근로자		2,816	2,844	2,995	3,111	3,168
임금총액		( 6.8)	( 1.0)	( 5.3)	( 3.9)	(-6.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7	3,019	3,178	3,299	3,343
	정액급여	( 6.4)	(-0.9)	( 5.3)	( 3.8)	(-6.6)
	정액급여	2,234	2,341	2,470	2,578	2,568
	( 4.5)	( 4.8)	( 5.5)	( 4.4)	( 4.6)	
초과급여	196	179	181	184	177	
	(12.2)	(-8.4)	( 1.0)	( 1.7)	( 5.9)	
특별급여	617	498	527	537	598	
	(12.3)	(-19.3)	( 5.8)	( 1.8)	(-37.4)	
임시·일용근로자		1,056	1,215	1,293	1,377	1,449
임금총액		(-1.6)	(15.1)	( 6.4)	( 6.5)	( 8.0)
소비자물가지수		100.0	104.0	106.3	107.6	107.3
		( 2.9)	( 4.0)	( 2.2)	( 1.2)	( 1.5)
실질임금증가율		3.8	-2.9	3.1	2.6	-7.9
						14.7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서 임금이 증가

- 2014년 1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은 제조업(24.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1.1%)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모든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3.3%), 교육서비스업(13.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2.7%), 금융 및 보험업(11.3%) 등 특별급여 지급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10% 이상의 상승폭을 보임.
  - 이외에도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이 증가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2014	
				1월	1월
전 산업	2,844( 1.0)	2,995( 5.3)	3,111( 3.9)	3,168( -6.6)	3,673(15.9)
광업	3,309(10.3)	3,470( 4.9)	3,557( 2.5)	3,858( 0.0)	3,951( 2.4)
제조업	3,034( 1.6)	3,221( 6.1)	3,371( 4.7)	3,684( -5.9)	4,589(24.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482( 0.5)	5,388(-1.7)	5,542( 2.9)	4,436( -6.5)	5,027(13.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88( 1.9)	2,654( 6.7)	2,743( 3.3)	2,718( -2.5)	3,041(11.9)
건설업	2,181(12.2)	2,273( 4.2)	2,414( 6.2)	2,486( 0.0)	2,724( 9.5)
도매 및 소매업	2,942( 6.3)	3,122( 6.1)	3,168( 1.5)	3,140( -7.7)	3,334( 6.2)
운수업	2,393( 0.5)	2,589( 8.2)	2,732( 5.5)	2,504( -4.9)	2,762(10.3)
숙박 및 음식점업	1,653(13.0)	1,738( 5.2)	1,772( 1.9)	1,741( -2.4)	1,828( 5.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692( 9.1)	3,851( 4.3)	3,936( 2.2)	3,672(-13.1)	4,140(12.7)
금융 및 보험업	4,771( 1.9)	4,988( 4.6)	5,058( 1.4)	5,180(-10.6)	5,768(1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7( 2.6)	2,194( 8.8)	2,269( 3.4)	2,227( -5.2)	2,381( 6.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70(-2.2)	4,112( 6.3)	4,243( 3.2)	3,895(-11.0)	4,715(21.1)
사업서비스업	1,700(-8.0)	1,789( 5.3)	1,883( 5.2)	1,835( 0.4)	1,970( 7.4)
교육서비스업	2,985(-5.4)	3,123( 4.6)	3,261( 4.4)	3,731( -3.3)	4,222(13.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490(-4.0)	2,608( 4.7)	2,662( 2.0)	2,689( -3.4)	2,799( 4.1)
여가관련 서비스업	2,130( 1.1)	2,211( 3.8)	2,326( 5.2)	2,399( 1.3)	2,579( 7.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85( 3.9)	2,228( 2.0)	2,226(-0.1)	2,224(-10.6)	2,296( 3.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각 규모의 임금상승률 상승

- 2014년 1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와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 모두에서 상승함.
  - 2014년 1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3,20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급여(81.1%)의 급격한 증가와 정액급여(3.4%), 초과급여(6.6%) 증가의 영향임.
  - 또한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6,40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5% 증가하였는데, 이 역시 특별급여(75.0%)의 급격한 증가와 정액급여(4.3%), 초과급여(2.8%) 증가의 영향임.
- 반면, 비상용근로자 명목임금총액 상승률은 5~299인 규모는 감소하고,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증가함.
  - 5~299인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4년 1월 대비 0.2% 감소한 1,464천 원을 기록함.
  - 그러나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4년 1월 대비 19.0% 증가한 1,465천 원을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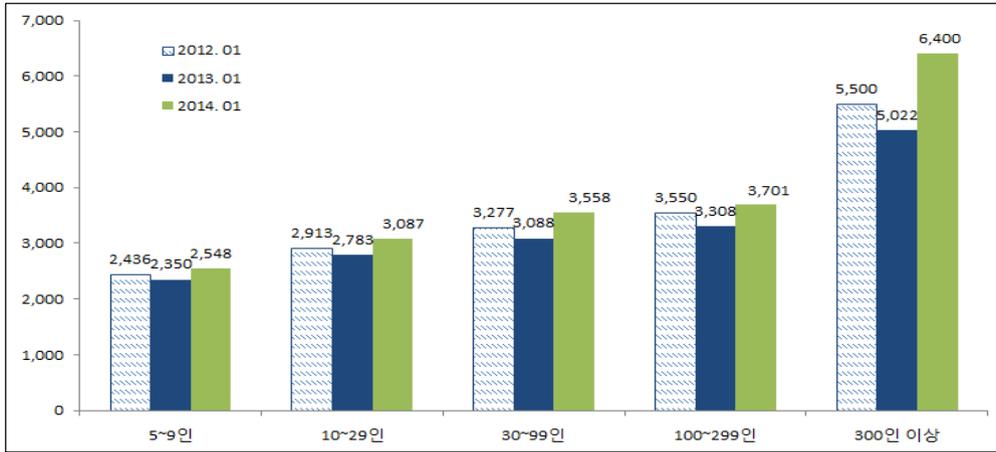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2014	
					1월	1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019( -0.9)	3,178( 5.3)	3,299( 3.8)	3,343( -6.6)	3,895(16.5)
	정액급여	2,341( 4.8)	2,470( 5.5)	2,578( 4.4)	2,568( 4.6)	2,658( 3.5)
	초과급여	179( -8.4)	181( 1.0)	184( 1.7)	177( 5.9)	185( 5.0)
	특별급여	498(-19.3)	527( 5.8)	537( 1.8)	598(-37.4)	1,051(75.7)
	비상용임금총액	1,215( 15.1)	1,293( 6.4)	1,377( 6.5)	1,449( 8.0)	1,464( 1.1)
5~299인	상용임금총액	2,675( -0.9)	2,834( 5.9)	2,938( 3.7)	2,869( -5.4)	3,205(11.7)
	정액급여	2,204( 5.9)	2,333( 5.9)	2,433( 4.3)	2,420( 4.5)	2,501( 3.4)
	초과급여	150(-14.5)	156( 3.5)	160( 3.0)	149( 5.3)	158( 6.6)
	특별급여	321(-27.3)	345( 7.7)	345(-0.3)	301(-47.7)	545(81.1)
	비상용임금총액	1,216( 14.8)	1,301( 7.0)	1,392( 7.0)	1,468( 9.0)	1,464(-0.2)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273( -0.4)	4,424( 3.5)	4,583( 3.6)	5,022( -8.7)	6,400(27.5)
	정액급여	2,842( 2.3)	2,965( 4.3)	3,093( 4.3)	3,095( 5.0)	3,227( 4.3)
	초과급여	286( 6.7)	275(-3.9)	270(-1.6)	276( 7.2)	284( 2.8)
	특별급여	1,146( -8.0)	1,185( 3.4)	1,220( 3.0)	1,651(-28.0)	2,889(75.0)
	비상용임금총액	1,208( 17.8)	1,209( 0.1)	1,219( 0.8)	1,231( -3.8)	1,465(19.0)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9]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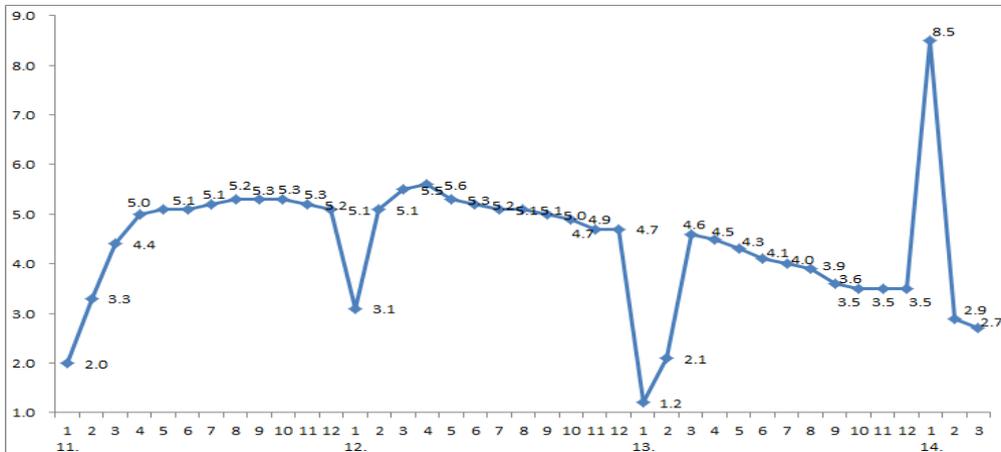
◆ 2014년 3월 협약임금 인상률 2.7%

○ 2014년 3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2.7%로 2013년 3월 인상률(4.6%)에 비해 1.9%p 하락함.

— 2014년 3월 임금결정진도율은 1.9%로 전년동월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그림 10]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4년 1월 근로시간 7.4% 감소

- 설명절 영향으로 월력상 근로일수가 2013년 1월 대비 2일 감소한 영향으로 2014년 1월 근로시간은 13.6시간 감소함.
  - 2014년 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9.0시간)은 전년동월(182.6시간)에 비해 13.6시간(7.4%) 감소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3.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2%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5.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3% 감소하였음.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1	2012	2013	2014	
				1월	1월
전체 근로시간	176.3 (-0.2)	174.3(-1.1)	172.6(-1.0)	182.6( 7.2)	169.0( -7.4)
상용총근로시간	182.1( -1.4)	179.9(-1.2)	178.1(-1.0)	186.9( 7.3)	173.4( -7.2)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8.5( 0.1)	167.2(-0.8)	165.6(-1.0)	174.9( 8.1)	160.7( -8.1)
상용초과근로시간	13.6(-17.1)	12.8(-5.9)	12.5(-2.3)	12.1(-1.6)	12.7( 5.0)
비상용근로시간	122.5( 6.2)	122.3(-0.2)	122.5( 0.2)	139.8( 9.0)	125.4(-10.3)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건설업, 광업 등 2014년 1월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4년 1월 근로일수가 2013년 1월 대비 2일 감소한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특히 건설업(-10.9%), 광업(-10.6%)에서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했고, 그 외 대부분 산업의 근로시간이 3~9%가량 감소했음.
  - 2014년 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0.4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건설업(150.0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1	2012	2013	2014	
				1월	1월
전 산업	176.3(-0.2)	174.3(-1.1)	172.6(-1.0)	182.6( 7.2)	169.0( -7.4)
광업	186.9(-0.6)	185.3(-0.9)	180.6(-2.5)	193.1( 6.8)	172.6(-10.6)
제조업	190.6(-0.8)	186.4(-2.2)	185.0(-0.8)	194.4( 8.1)	182.1( -6.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7.1( 0.1)	175.5(-0.9)	173.4(-1.2)	177.0( 2.3)	170.5( -3.7)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6.2(-3.5)	184.8(-0.8)	182.0(-1.5)	190.9( 6.4)	177.1( -7.2)
건설업	153.9( 5.3)	152.5(-0.9)	152.7( 0.1)	168.3(10.4)	150.0(-10.9)
도매 및 소매업	175.1(-1.2)	174.5(-0.3)	173.4(-0.6)	183.2( 8.0)	168.9( -7.8)
운수업	181.6(-1.6)	181.7( 0.1)	177.8(-2.1)	183.5( 2.5)	171.6( -6.5)
숙박 및 음식점업	186.2(13.7)	186.6( 0.2)	177.3(-5.0)	185.0( 0.3)	177.9( -3.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5(-1.0)	163.9(-0.4)	163.0(-0.5)	173.1( 9.5)	159.0( -8.1)
금융 및 보험업	163.6(-1.0)	163.4(-0.1)	162.7(-0.4)	174.8( 9.5)	160.8( -8.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4.2(-3.1)	193.4(-0.4)	191.5(-1.0)	201.1( 4.5)	190.4( -5.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6.2(-0.1)	165.3(-0.5)	163.9(-0.8)	172.5( 7.5)	158.2( -8.3)
사업서비스업	172.1(-4.4)	173.1( 0.6)	172.3(-0.5)	180.8( 6.2)	168.4( -6.9)
교육서비스업	152.9( 2.0)	151.1(-1.2)	150.6(-0.3)	162.2(10.0)	150.8(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3.5(-1.7)	174.8( 0.7)	172.0(-1.6)	180.9( 6.6)	166.2( -8.1)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1(-1.0)	158.1( 0.6)	158.0(-0.1)	163.3(10.0)	157.7( -3.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73.6(-0.2)	168.9(-2.7)	167.5(-0.8)	178.3( 8.5)	162.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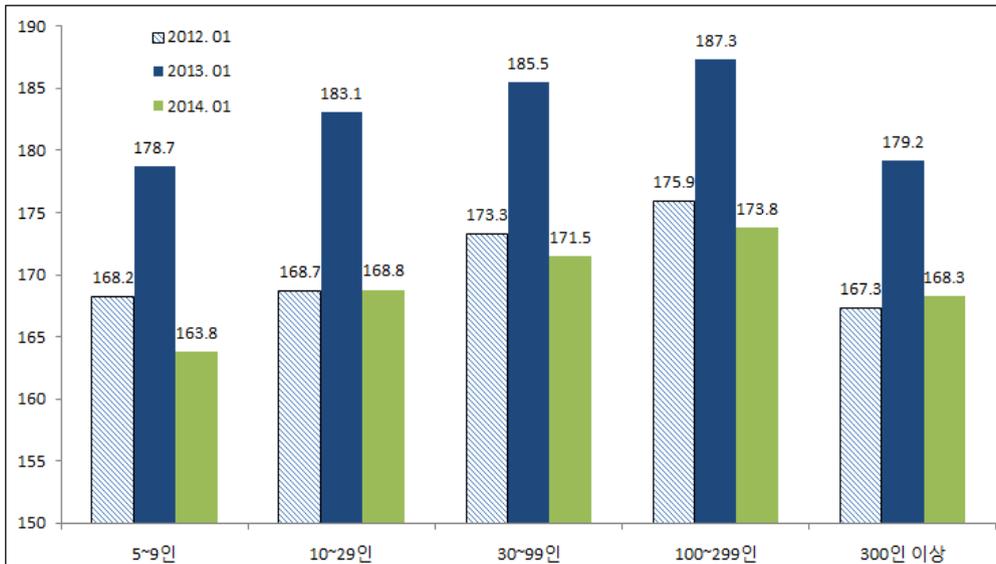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월 모든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4년 1월 사업체규모별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모든 규모에서 감소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8.3%,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8%,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5%,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3.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7.2%,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1% 감소함(그림 11 참조).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3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84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106건)보다 78건 높은 수치임.
- 지난 3월 조정성립률 50.8%
  - 지난 3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69.7%)보다 18.9%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음.

〈표 11〉 2013, 2014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3	184	155	61	30	31	59	5	54	19	16	29	50.8
2013. 3	106	86	53	31	22	23	8	15	4	6	20	69.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11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46건)보다 71건 높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2.6%(31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67.4%(64건)를 차지함.

〈표 12〉 2013, 2014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3	117	95	29	2	32	7	25	0	22
2013. 3	46	39	9	4	8	5	13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노사정소위, 활동 종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 종료
  -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노사정소위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4월 15일 공식활동을 종료함.
  - 노동계의 잇따른 불참 선언에 의해 난항을 겪었던 노사정소위는 한국노총 참여 결정에 따라 지난 3월 근로시간 단축·노사관계 개선·통상임금 등 의제를 확정하고 논의를 전개해 옴.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노사정과 여야 모두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짐. 시행시기와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이 엇갈림.
  - 손배·가압류 제도개선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문제는 환노위 차원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됨. 네거티브 방식은 통상임금 원칙을 정한 뒤 제외금품을 열거하는 방식임.
-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정소위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범안심사소위를 열어 입법화 작업에 들어가게 됨.

○ 민주노총의 입장

- 민주노총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마무리 된 노사정소위 활동을 비판하며,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노동관계법 개정예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함.
- 아울러 ①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② 노조 설립절차 개선, ③ 손배-가압류 제한, ④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⑤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⑥ 산별교섭 제도화, ⑦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⑧ 필수유지업무 제도 폐지, ⑨ 공격적 직장폐쇄 제한, ⑩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⑪ 정리해고 철폐, ⑫ 실노동시간 단축, ⑬ 통상임금 정상화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

○ 4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1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시작함.
- 민주노총은 심의에 불참함.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불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양대 노총은 역할 분담을 통해 공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임. 한국노총은 협상태이블에서, 민주노총은 장외에서 각각 활동을 전개하며 연대할 것으로 보임.
-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5,210원)보다 28.6% 인상된 6,700원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짐.
- 재계는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된 6월 5일께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임. 재계는 2010년 이후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까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함.

◆ 공공부문 동향

○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과 노사갈등

-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이 예고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조만간 개최되며, 이를 기점으로 정부의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125개 공공기관장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경영평가단이 워크숍에 참석하여 공공기관들의 경영개선 계획을 점검하게 됨.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는 “정상화 이행계획 추진율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다 예전과 달리 경영평가에 대한 노조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이날 워크숍에서 정부가 기관장들을 엄청 쪼아 댈 것”이라며 “워크숍 개최를 전후해 정부와 사측이 노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함.
- 공대위는 워크숍 당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와 대시민 선전전을 통해 항의한다는 방침임. 공대위 관계자는 “정부·사측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대 노총 내셔널센터와 공대위 차원의 현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1,000명 무기계약직 전환

-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810개 기관에서 31,782명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것임.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26.1%에 해당하는 6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임.
- 용역·과건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기관은 인천교통공사(290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90명), 서울시시설관리공단(162명) 등 일부 기관에 그침.
- 민주노총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노동자 90% 이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고, 올해 초 상담사와 스포츠강사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함.
- 한국노총도 “정부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고,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청소·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함.

◆ **통신업계 동향**

○ **KT 구조조정 예고와 노사갈등**

- KT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청와대 낙하산 인사 논란, 적자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음.
- KT새노조·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 12개 단체는 3월 26일, 4대 요구안을 발표함. 참가자들은 △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징계·피해보상과 시민사회와의 분쟁조정, △ 대리점주 등 ‘을’ 피해자들과의 성실교섭, △ 노동인권문제 해결과 희생자 원상회복, △ 청와대 낙하산 근절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함.
- KT노조는 2014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영감시와 현장활동을 통해 KT를 되살리겠다”고 밝힘.
- 4월 10일부터 KT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함에 따라 전국 본사와 지사에서 명퇴 관련 개별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KT새노조는 “면담을 통한 명퇴 강요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함.
- KT전국민주동지회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KT가 국가자산인 인공위성까지 헐값에 판 경영진은 그냥 두고 국민세금으로 일군 유선부문을 매각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KT 민영화 뒤 인력구조조정은 통신공공성 강화가 아닌 경영진과 주주들을 위해서만 진행됐다”고 비판함.
-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KT가 현장업무를 협력업체나 계열사로 이관해 정규직을 퇴출시키는 한편, 기존의 명예제도를 폐지하고 사무·기술직을 일반직렬로 통합시켜 상시퇴출이 용이한 구조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함.
-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쌍용자동차·한진중공업을 봐도 구조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회사 정상화를 지연시켰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10년 전 공기업을 함부로 민영화한 정부에도 있다”고 강조함.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협력업체 노조 설립**

-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함.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거대 통신업체에서도 위장도급과 협력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의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고객센터에서 인터넷 선·전화·IPTV의 개통·AS·철거·영업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노조에 따르면, 두 기업 가운데에는 원청과 고객센터가 도급계약을 맺는 일반적인 형태도 있지만, 원청과 고객센터 사이에 중간업체가 끼어 있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존재함. 같은 협력업체 직원이라도 협력업체 정규직이 있는 반면, 개인 도급계약이나 소사장제로 운영되는 곳도 있음.
- 이들 두 업체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이른바 ‘근로자영자’ 고용형태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과 각종 수당 미지급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됨.
-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07년 근로자파견 판단지침을 개악한 뒤 서비스산업에 속속 등장하는 변종고용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합친 ‘근로자영자’라는 변종괴물이 탄생했다”고 비판함.
-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노조결성 과정에서 원·하청 사용자들이 탈퇴를 협박·회유한 사례가 많았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원청이 실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함.

#### ◆ 외국계 은행 구조조정과 노사갈등

##### ○ 매각 앞둔 SC스탠다드저축은행 노사갈등

- SC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는 작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한국 지점 25% 감축 계획을 발표함.
- SC금융그룹이 저축은행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갈등이 증폭됨.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협상에는 경영진조차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 노사는 3월 둘째 주부터 20일 동안 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사무금융노조 SC저축은행지회는 “신속한 밀실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4월 8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함.

##### ○ 한국씨티은행 영업점 폐쇄와 노사갈등

- 한국씨티은행이 5월부터 51개 소매영업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함. 중소·중견기업 영업점 5개도 감축할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전체 점포의 29%가 문을 닫고, 최대 650명의 인력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한국씨티은행은 2012년에도 22개 점포를 폐쇄한 바 있음.
- 씨티그룹은 올해 초 “영향력 있는 고객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대도시 중심으로 한

- 국씨티은행의 지점 축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금융노조 씨티은행지부 관계자는 “지부보충협약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 **코레일 순환전보와 노사갈등**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850여 명에 대한 순환전보 강행
  - 코레일은 3월 27일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속간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연 2회 시행하겠다”고 밝힘.
  - 노조는 정기적인 순환·인사교류라는 코레일의 주장을 “노조 무력화를 위한 강제 전출”이라고 반발함. 그리고 한 노조 관계자는 “전보가 이번처럼 일방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함.
  -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코레일에 교섭을 주문하고 나섬.
  - 코레일 관계자는 “인사권은 사측의 고유한 권한으로 교섭사항이 아니며, 노조집행부 대부분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해고자 신분이기 때문에 교섭진행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짐.
- 코레일 순환전보 대상자의 죽음
  - 4월 2일, 코레일 순환전보 대상자였던 조 모 씨(50)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
  - 노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파업 당시 우울증을 겪음. 조씨는 최근 코레일의 순환전보 대상명단에 이름이 올랐고, 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동료들에게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짐.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조합원의 죽음은 철도 민영화 강행을 위해 노조탄압에만 골몰한 최연혜 사장의 무분별한 대규모 전출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며 “또 다른 조합원의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강제전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함.

◆ **삼성전자서비스 폐업센터 직원들 고용승계 요구**

- 지난달 폐업한 해운대·아산·이천센터의 노동자들, 센터 재개장과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나섬.
  - 노조에 따르면, 폐업한 3개 센터 조합원 90여 명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폐업한 센터 재개장과 기존직원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센터 앞 노숙농성·서명

- 운동·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음.
- 삼성전자서비스가 4월초 센터를 운영할 업체를 모집했지만 입찰에 응한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 위장폐업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 한국지엠 휴업 장기화

- 고용보장대책위원회 구성
  - 지엠 본사 차원의 물량축소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됨.
  - 금속노조에 따르면 5월 말까지 한국지엠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고용보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짐. 대책위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임. 노조는 4월내 한국지엠 공장이 있는 인천·전북(군산)·경남(창원)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역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함.
  -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올해부터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장가동률이 50% 수준에 머물면서 사실상 1교대제 근무를 하고 있음. 부평 2공장은 잔업·특근을 하지 않고 있고, 올해 1월부터는 휴무일도 차츰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노조 관계자는 “대책위 구성을 통해 물량 축소에 따른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 화물, 버스, 택시업계 현안

- 화물연대, 28일 경고파업 예고
  - 언론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이 표준운임제 도입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벌일 예정임.
  -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차주라는 이유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실제 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놓여 있으면서 저임금·장시간 노동, 중간착취에 시달리는 실정임. 화물연대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버스공공성 쟁점화

- 자동차노조연맹 관계자는 정치권에 버스준공영제 및 공영제 실시를 이번 6·4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함.
- 연맹은 서울 등 6대 도시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개선하자는 입장임.
- 준공영제 미실시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버스 운영체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임. 연맹은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경우 공영제 모델이, 30만 명 이상 중소도시는 준공영제 모델이 적합하다고 주장함.

○ 정부-택시업계 갈등

- 작년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음. 올해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안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놓고 또다시 맞부딪힘.
- 감차규모와 택시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위원회에 택시 노동계를 배제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택시 사용자측은 “감차는 경영상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KLI**

(송민수,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